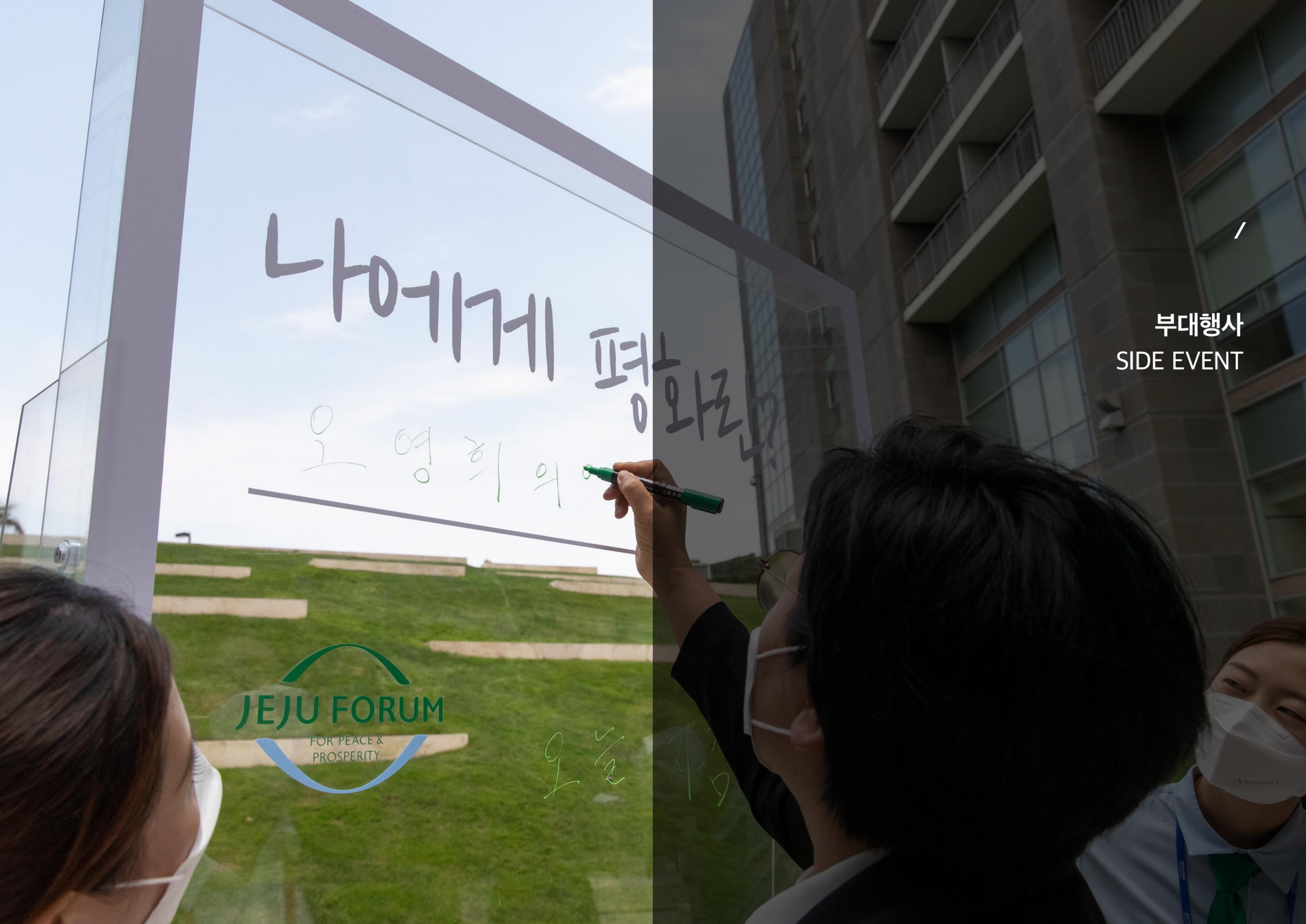


나에게서 평화
오영희의 오와준?

부대행사
SIDE EVENT





WE REMEMBER YOU 6.25 특별 프로그램

제주의 상징 동백꽃으로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으로 헌화하는 6.25 특별 프로그램

"6.25참전용사들의 영상을 보고나니 숙연해지네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 참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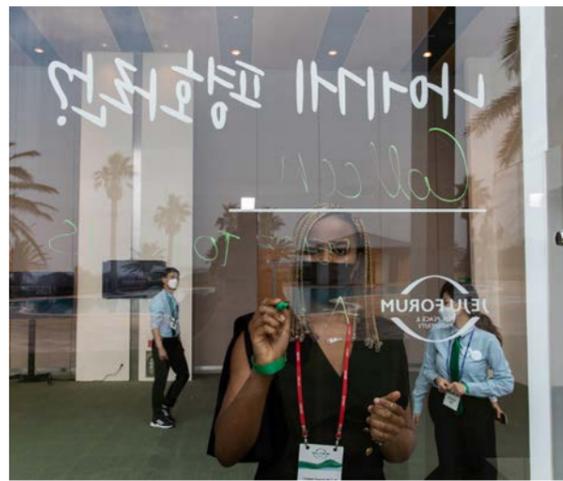
"동백꽃이 제주 4.3 추모 꽃이죠? 제주포럼에서 말하는 6.25전쟁의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의미가 이해되네요."

"아이 교육에 도움이 돼요. 아이에게 6.25전쟁 추모 의미를 알려주니 동백꽃 붙이고서 뿌듯해하네요."

"동백꽃을 붙이니깐 We Remember You 라는 문구를 제가 써가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분이에요."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의미에 잘 맞게 해주었네요. 기도하고 붙일게요."





'나에게 평화란?' INTERVIEW WALL

전 참가자들이 포럼의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이벤트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同行 하는 것"

"깨끗한 물, 맑은 공기"

"A Time where there is nothing but Love. Peace=Love"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시원하고 맑은 여름바다"





제주포럼 지역 식당 푸드투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비수기 휴양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식당 연계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방문하다보니 많은 손님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행사 기간 내 예상하지 못한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좋았다."

"행사 전 제의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행사기간동안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어 감사했다."

"매일 준비한 식자재를 당일에 모두 소진할 만큼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었다. 제16회 제주포럼과 함께하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추후 행사 시에도 적극 협조하고 싶다."





청소년 기자단

신문·방송·뉴미디어 또는 국제회의에 관심 있는 제주도 내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취재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자로서 세션을 참관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주포럼과 같은 큰 행사에서 직접 강연을 듣고 기사를 작성해볼 수도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연사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내년 제주포럼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미얀마와 제주 청년들의 만남

평화와 시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미얀마 청년연대와 제주의 청년들이 만나 미얀마 상황의 평화로운 해결책을 기원하며 소통하는 특별 이벤트

"이번 제주포럼이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미얀마를 다시 한번 한국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연대를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4·3사건에 대해 들었고, 역사책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앞길, 공부 취업으로 미얀마 사태가 오늘 이 시간 있기 전까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고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됐고"





제주포럼 서포터즈

제16회 제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일할 진행요원의 모집

"제주포럼 3일 동안 돌발 상황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았는데, 행사 업체 분들의 침착한 대처와 해결을 보면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꿀 알바라기엔 너무나도 유익한 알바에 가까웠다 중간중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들려오는 유익한 강연들과 국가급 단위의 행사 진행요원으로서 본분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뿌듯함이 찾아오는 좋은 경험이었다."

"코로나 터진 이후로 제대로 된 행사장에 가보질 못했는데 제주포럼 운영요원 활동 덕분에 MICE 업계에 식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하이브리드로 돌아가는 행사장에 나갈 수 있어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다음 제주포럼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싶다."

